



시조에 담은 일상의 허무와 극복

《가슴으로 오는 새벽》 펴낸 박시교씨

“또한번 쓰러지기 위해 나는 일어선다/
나뭇잎 죄다 떨군 겨울나무의 의지처럼/
시작은 언제나 그렇게/힘겹고 쓸쓸했다.

등불을 밝히듯이 모든 사유들을 닦지만/
남루한 모습은 끝내 지울 수가 없구나/
지나온 우수의 길 위로/불지피는 저녁놀.

이름답다. 삶의 처연한 상처까지도
이름답다/곧이어 어둠의 깊은 장막은
내려질 것이고/마침내/그 무대 뒤에서
흔들릴 한 사람”

〈빈손을 위하여〉로 96년
‘중앙시조대상’을 수상했던 시조시인
박시교(52)씨가 시집 《가슴으로 오는
새벽》(책만드는집)을 펴냈다. 그에게
‘오늘의 시조문학상’을 안겨주었던 〈겨울
광릉에서〉와 초기시들을 망라하여 엮은
일종의 선집이다. 젊은 문학도들에게
외면당하는 시조를 고집해온 지 27년.
드문드문 나온 그의 작품은 잘 갈무리된
질단처럼 정결하고 허허롭다.

“89년에 서울 모일간지에 시를,
대구매일신문에는 시조를 투고했습니다.
시조가 더 나왔던지 시조 당선 통지를
받았고, 현대시학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습니다. 그후 한평생 시조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지요.”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시인의 고향
봉화는 겨울에는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내리고, 십리 정도를 걸어가야
완행열차 정거장이 있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20대 초반 뜨거운 가슴을
억누르며 눈 내리는 겨울 온돌방에서
데뷔작 〈온돌방〉을 썼다.

시조의 길로 들어서면서 평시조와 옛시조
또는 사설을 혼합하는 형식을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등 시조의 형식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시를 쓸수록 불만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전통시는 낡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시인들이 과연 형식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조가 형식, 운율 등에 묶여 자유시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형식은 여러가지로
변형을 꾀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박시교씨 시조에는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쓸쓸한 가을과 겨울, 바람, 저물녘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일상의 뒤안엔 부는
찬바람 같은 것을 정밀하게 잡아내고
곰삭여 시조라는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낸다.
나이가 들수록 작품의 무게에 더 신경이
쓰여 오래 진통하고 열성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작이다.

추계예술대에서 자신의 시조강의를
받았던 학생 2명이 그해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을 통해 등단한 일이 가장
보람차다. 시조야말로 젊은이들이 시도해볼
만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 우리 말과 우리
정신을 꽃피우는 일이다. 생활인으로서의
그는 (주)천재교육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세 아이의 아버지로 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이다. — 마정미 기자



옛 글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마음을 비우는 지혜》 펴낸 정민 교수

풀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자칫 원문을
훼손하게 될까봐 원문을 수록했습니다.
시대감이 다르니 일정한 해설이 필요할
것도 같고 글을 읽어나가다가 제 생각을
끼워넣고 싶은 생각도 일어 평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정교수는 대학시절에는 시인을 꿈꾸며
시작(詩作)에 몰두했었다. 이때부터 싹튼
문장에 대한 까탈스러운 미각은 한시를
공부하면서 강도를 더해, 어떤 글이든
써놓고는 대여섯번씩 소리내어 읽어 막힘이
없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서예와
전각이 취미라 좋은 시가 보이면 집이고
연구실이고 써 붙여놓고 들여다며 읽고
자연스레 외운다. 시와 땡굴며 시 속에
파묻혀 사는 자신의 삶이 그는 껍이나
만족스럽다.

그러나 정교수는 옛것의 가치, 옛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에 일종의 사명감을
느낀다. 우리 옛시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편, 우리나라
고전작가들의 문장이론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식 글쓰기의 참맛과 멋을 밝혀
볼 작정이다. — 박남정 기자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지식인 사이에서
성행했던 문학장르인 ‘청언(淸言)’은 말
그대로 ‘맑은 노래’다. 난세의 지식인들은
세상 밖으로 뺏겨던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향하고, 자연과 삶의 원리와 그것이 지닌
내밀한 기쁨을 짚고 간결한 문장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냈다.

《한시미학산책》을 통해 잊혀졌던
한시(漢詩)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일깨웠던 정민(37.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이번에는 ‘청언’을 소개한다. 《마음을
비우는 지혜》(술)가 그것이다. 이 책은
《명청문인청언집(淸言集)》(1991,
중국광파전시출판사)을 편역하고 평설을
덧붙인 책이다.

“지난해 겨울 원하지 않는 여러가지 일로
이리저리 꼬달리며 심신이 지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마음에 위로나 될까하고
펴든 책이 《명청문인청언집》이었는데,
읽다보니 어찌나 좋은지 지하철에서도
집에서도 잠만 나면 펼치게 되더군요.”

자신이 받은 위안과 감동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정교수는 작가별로 작품이
나열된 《명청문인청언집》에 수록된
592수의 청언 가운데 484항목을 추려서
이를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새롭게
편집했다. 〈흐린 세상 건너가기〉〈삶의 예술,
예술의 삶〉〈자연이 주는 선물〉〈무욕의 길〉
〈책읽는 즐거움〉〈마음 다스리기〉 등의
주제들은 ‘청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짐작케 한다. 명징하고
간결한 정교수의 평설은 원문의 감동을
능가한다.

“청언은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역이 어려워





시간표에서 쫓겨난 미술교육

《1318 미술여행》 펴낸 김종수씨

《1318 미술여행》(동녘)은 교사가 쓴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안내서다. “청소년 대상의 미술책은 미대 입시를 위한 표현기법 등이 고작입니다. 미술교양서로 나와 있는 책을 학생들에게 읽혔더니 어려운 미술용어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현실을 대하고 김종수씨(37, 한강전자예술고 교사)는 미술의 본질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청소년용 책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 《1318...》은 그 꿈의 결실이다. 대학에서 공부한 것, 10여년간의 학교 경험을 쏟아부어 4년간 작업했다. 감각적인 취향의 청소년을 고려해 직접 그린 만화와 도판·삽화로 내용을 시각화하는 데 특히 신경을 썼다.

“미술은 지식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창의력과 감성을 발현시키는 정서교육이죠.”

하지만 미술은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에서 가장 먼저 쫓겨났고, 곧 선택과목이 된다. 미술교육의 이같은 운명은 소명의식을 부추겼다. 책 첫머리에 제시해 놓은 ‘미술수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교육행정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6인용 실습대, 슬라이드 스크린, 슬라이드, 교사용 작업대, 자료 보관장, 수도시설, 암막장치, 폐휴지 수집함, 쓰레기통, 학생 기본용구보관장, 학생 작품보관장, 40평 규모의 미술실 2칸 등 미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모두 12가지.

“지금의 교육제도에서는 불가능하지요. 이 책이 시설을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 책은 미술의 이해와 표현, 감상, 미술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 미술에 대한 생각을 많은 경험과 예로 설명했다. 전공(동양화)을 살려 우리 미술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사람의 신체를 닮은 도자기, 균제된 비례미로 몬드리안의 ‘구성’을 연상케 하는 조선시대의 조각보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우리 미술의 특질을 보여준다.

책은 풀록이나 백남준의 작업이 미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용과 창의적인 형식이 자연스럽게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미술감상도 어떤 조형질서로, 어떤 배경에서 그려졌는지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술교육은 교감이 우선입니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사의 열린 마음이 어우러져야지요.”

김종수씨는 교사이면서 화가다. 경험한 것을 부지런히 표현하지 않으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번지기 같은 동양화의 특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응용한 그림을 즐겨 그리는데,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두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 이현주 기자



재주 없는 아버지가 재미있게 아버지 노릇하는 강우현식 발상법

공 심은 데 공 난다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부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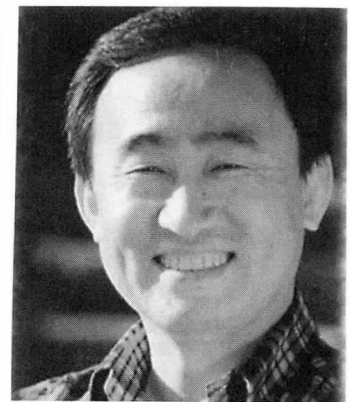
강우현씨의 좋은 아버지가 되는 20가지 실천 제안

1.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
2. 좋은 말을 먼저 하라.
3. 좋은 일을 우선 행하라.
4. 좋은 일은 흉내내보라.
5. 좋은 일은 이웃과 나누라.
6.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하라.
7. 항상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라.
8. 항상 마음과 얼굴을 밝게 하라.
9. 항상 문화를 사랑하는 가풍을 세우라.
10. 항상 온 가족이 좋은 미래를 꿈꾸라.
11. 자녀 앞에서 부모님 흉을 보지 말라.
12.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13. 자녀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라.
14.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15.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지 말라.
16. 자녀에게 함부로 매질하지 말라.
17. 똑같은 일로 자주 훈계하지 말라.
18.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말라.
19. 자녀를 남과 비교해 말하지 말라.
20. 의연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라.

젊은 부모를 위한 가정교육 에세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지은이 강우현

그림동화작가이자 캐릭터 디자이너인 강우현은 '89년 「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강좌와 '91년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강좌에 이어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아버지 문화를 통한 가정문화운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월간 「아버지와 가정」발행인이기도 하다. 그림동화 「사막의 공룡」으로 NOMA 그림책 원화콩쿠르 그랑프리, 일본 고단샤 출판문화상, 체코 BIB-89 그림책 원화비엔날레 금패상을 수상했으며, '93 올해의 디자이너상, 환경문화예술상, 어린이문화대상, 올해의 좋은 아버지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랜드, 서울정도600년을 포함해 국내외의 30여 개의 캐릭터를 디자인했으며, 저서로 「싱싱」, 「장장」, 「랑랑」등 10여 권의 그림동화와 「생물과 바가지」, 「컴퓨터그래픽디자인 테크닉스」등이 있고, 환경동화 「가우디의 바다」를 번역했다.



소설 「丹」의 작가 김정빈 수필집

湖水

그대 마음의 호수에 포근히 내려앉는 아주 낮은 사랑이야기

성현출판사 전화 565/1113
잉클린 팩스 565/6727